

# 조선 중기 黃耆老 草書風의 유행

柳 志 福\*

- I. 머리말
- II. 16세기 전반 明代 초서풍의 전래와 수용
- III. 황기로 초서풍의 특징
- IV. 황기로 초서풍의 유행 양상
- V.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서예사에서 조선 중기는 草書가 가장 성행했던 시기이다.<sup>1</sup> 16세기 초에 이르러 중국과의 서예교섭이 활발해지면서 明代의 초서풍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는

\* 대전대학교 강사

<sup>1</sup> 시기구분과 관련하여 그간 발표된 서예사 관련 논저들을 살펴볼 때 明代 서풍이 유입되어 초서의 명가가 다수 등장하고 韓濩(1543-1605)의 서풍이 대세를 이루었던 시기를 조선 중기로 보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이 시기는 安平大君 李瑢(1418-1453) 등에 의해 元代 서풍이 지속되었던 이전 시기와 구분되며, 尹淳(1680-1741)·李匡師(1705-1777) 등이 두각을 나타내며 명대 文人書風의 다양성을 보인 이후의 시기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명대 서풍의 유입이 현저했던 16세기로부터 문인서풍이 파급되기 이전인 17세기까지를 조선 중기로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데, 이는 전래 서풍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던 王羲之의 古法과는 달리 보다 자유분방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띤 서풍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초서에 재능을 지닌 일군의 서예가들이 명대의 서풍을 수용하며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sup>2</sup> 그중 가장 독특하고도 放逸한 서풍을 구사한 이로 孤山 黃耆老(1521-1575 이후)를 들 수 있다.

황기로는 14세에 司馬試에 합격하는 뛰어난 재능을 지녔음에도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채 경북 善山의 寶泉灘 언덕에 정자를 짓고 술과 글씨로 평생을 지냈다. 또한 보천단 언덕을 孤山이라 부르고 정자를 梅鶴亭이라 이름하여 그의 호를 삼았는데, 이는 西湖 孤山에 매화를 심고 학을 길러 '梅妻鶴子'로 불렸던 北宋의 은둔시인 林逋(967-1028)의 처사적 삶을 동경한 데서 온 것이다.<sup>3</sup>

황기로는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다른 서예가에 비해 보다 개성적인 특징을 보이며 후대의 초서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초서풍은 사위인 玉山 李瑀를 비롯한 여러 서예가들에 의해 16·17세기에 걸쳐 폭넓게 유행하였으며, 18세기에 이르는 시기까지도 그 영향이 지속되었다.

본고에서는 명대 초서풍의 전래와 수용과정 및 황기로 초서풍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그의 서풍을 따라던 서예가들의 글씨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조선 중기에 전개되었던 황기로 초서풍의 유행 양상 및 그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 II. 16세기 전반 明代 초서풍의 전래와 수용

명대의 초서풍은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명대 초기에는 二王의 전통을 지키려는 元代 이래의 복고주의 흐름이 지속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초서에 재능을 갖춘 서가들이 다수 등장하여 새로운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중국의 초서 발전과정에서 唐代의 張旭과 懷素는 전래 초서의 전형을 확장시켜 예술성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서예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酒興을 빌리는 作書 태도

<sup>2</sup> 16세기 조선시대 초서풍의 개괄적 흐름에 관해서는 李完雨, 「16世紀朝鮮時代의草書について」, 『國際書學研究/2000』(東京: 書學書道史學會編, 2000), pp.508-519 참조.

<sup>3</sup> 황기로의 생애에 관해서는 柳志福, 「孤山 黃耆老의 書藝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pp.3-33 참조.

와 일탈한 행동으로 인해 ‘顛張狂素’ 또는 ‘狂繼顛’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文人趣味가 널리 확산되며 서화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더해 갔던 명대에는 장욱과 회소의 서풍을 바탕으로 개성적인 글씨를 추구하는 서가들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욱 많이 출현하며 초서의 성행을 이끌었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했던 인물은 江蘇省 松江縣을 중심으로 활동한 宋克·沈度·陳璧·張弼 등 이른바 ‘雲間書派’에 속했던 서가들이다.<sup>4</sup> 이 가운데 16세기 조선조에 전래된 명대 초서풍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은 張弼이다.



도 1 張弼, 〈張弼眞墨〉, 紙本墨書, 138.4×64cm, 屏風, 경북봉화 冲齋 權穰宗孫家

張弼(1425-1487)은 자가 汝弼, 만년의 호는 東海翁으로, 그의 아우 張駿과 함께 二張이라 불리며 해외에까지 명성이 자자하였다. 회소의 글씨에 뿌리를 둔 그의 초서풍은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국내에 유입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서풍이 전래될 당시 국내의 여러 문사들은 그의 글씨에 대해 “몇 년 묵은 교룡이 따리를 들고 있는 듯하고, 風雷가 벽 사이에서 일어나는 듯하다”고 하는가 하면,<sup>5</sup> “風雲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으며 戈法의 삼엄함은 귀신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하여 狂草에 가깝도록 분방한 서풍을 구사한 그의 글씨를 특징적으로 묘사하였다.<sup>6</sup>

현재 경북 봉화 冲齋 權穰(1478-1548) 종손가에 장필의 진적이 전한다도<sup>1</sup>. 이 필적은 권벌이 1539년(중종 34) 宗系改正奏請使로 燕京에 갔을 때 사갓고 온 것으로, 16세기 전반에 장필의 글씨가 국내에 유입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이다.<sup>7</sup> 이 필적에서 획이 斜線

<sup>4</sup> 雲間書派의 글씨에 관해서는 國立故宮博物院 編, 『雲間書派特展圖錄』(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94) 참조.

<sup>5</sup> 崔慶昌, 『孤竹遺稿』, 「題張東海書」, “張公遺墨老蛟蟠, 彷彿風雷起壁間, 直恐六丁來取去, 紫皇高掛玉樓看.”

<sup>6</sup> 趙綱, 『龍洲遺稿』 卷2, 「題張汝弼草書卷」, “神完於藝守無移, 東海雄鳴此可知, 誰借公孫大娘舞, 遠過張旭楚人奇, 風雲變化誰能測, 戈法森嚴鬼不窺, 堪笑遂良佳紙筆, 當年唯趁嫵媚姿.”

<sup>7</sup> 제1·2쪽은 장필이 쓴 글씨로 宋 程頤의 「秋日偶成二首」 중 둘째 수와 楊巨源의 「酬于駙馬二首」 중 첫째 수를 쓴



도 2 金絨, 《劉長卿詩》,  
《大東書法》, 版本,  
38×26.5cm, 帖,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으로 강렬하게 움직이거나 좌우로 떨어듯이 내려오는 筆勢는 위에서 언급한 장필 초서풍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명대 초서풍이 전래될 당시의 대표적 명필로 金絨(1488-1534), 金麟厚(1510-1560), 楊士彥(1517-1584), 황기로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명대의 초서풍을 가장 먼저 수용한 이는 自庵 金絨(1488-1534)이다. 《大東書法》에 실려 있는 김구의 초서 필적을 보면 사선으로 길게 빠치는 획과 圓勢의 활달한 운필에서 장필의 특징을 포함한 명대 개성적 초서풍이 잘 드러난다<sup>2</sup>. 己卯名賢을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근정한 서풍을 추구했던 그가 분방한 초서풍을 구사했다는 것은 당시에 유입된 명대의 서풍이 얼마나 급속히 확산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頤齋 黃胤錫(1729-1791)은 장필이 쓴 것으로 전하는 『草千字文』을 본 뒤 발문을 남겼는데, 장필의 서풍이 유입될 당시 서단의 동향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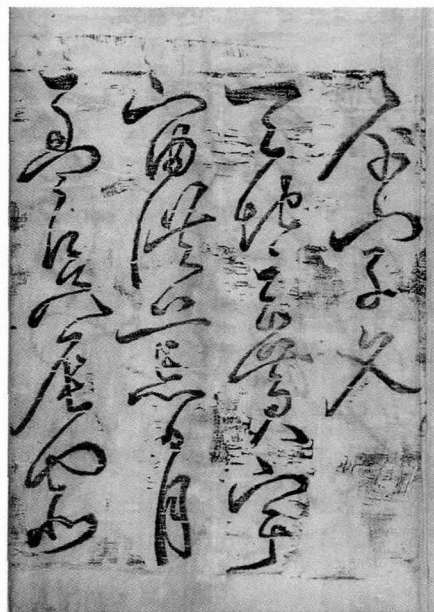
것이다. 3쪽에는 권벌의 5대손 權斗寅(1643-1719)·斗經(1654-1725) 형제의 발문이 있다. 이 발문은 權斗寅의 『荷塘集』에 「書張東海草書帖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86指定篇)』(文化財管理局, 1988), p.346 참조.

<sup>8</sup> 黃胤錫, 『頤齋遺藁』 卷12, 「書張東海千文法帖後」, “右皇明張東海汝弼千字草書, 本國驪興李震休伯起所識而傳者, 蓋嘉靖間人, 而書亦及其時東來, 一國書家靡然宗之, 如河西聽松諸賢, 猶駁駁游戲於斯, 而孤山蓬萊尤其酷好而與化者也, …入本朝安平以下, 愈多祖子昂, 謂之蜀體, 及張草後出, 與趙盛行, 則退溪以爲俱誤後學而曰, 學步吳興憂失故, 效顰東海恐成虛, 其斥之嚴矣.”

이상은 明 張東海 汝弼의 千字草書로 우리나라의 驪興 李震休(1657-1710) 伯起가 기록하여 전한 것이다. 장필은 대개 嘉靖年間(1522-1566) 사람으로,<sup>9</sup> 글씨 또한 그 시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그의 글씨가 들어오자] 온 나라의 書家들이 휩쓸리듯 그의 글씨를 따랐다. 河西[金麟厚]와 聽松[成守琛] 같은 諸賢도 오히려 황망히 이 글씨를 즐겨 썼으며, 孤山과 蓬萊[楊士彥]는 이 글씨에 더욱 매료되어 자신의 글씨를 탈바꿈한 자들이다. …本朝에 들어와서는 安平 이하로 더욱 子昂을 조종으로 여겨 이를 蜀體라 하였고, 張弼의 초서가 나온 뒤로는 趙孟頫의 초서와 함께 성행하였다. 그러자 退溪는 이들의 글씨가 모두 後學을 가르친다고 하며 이르기를 ‘조맹부를 배우려다 옛 법을 잃을까 걱정스럽고 장필을 흉내내다 헛수고만 할까 염려된다’고 하였으니, 그 배척함이 엄한 것이었다.

위의 기록을 통하여 장필의 서풍이 국내에 전해질 당시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성리학의 巨儒로 당시를 대표하던 李滉은 그의 품모만큼이나 글씨에 있어서도 王羲之의 고법을 바탕으로 한 단정한 짜임과 강직한 필법을 구사했다. 그러므로 ‘娟媚’하거나 ‘奇怪’하다는 평가를 듣던 조맹부나 장필의 글씨를 경계했던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의 師儒로 존송을 받으며 근정한 서풍을 추구했던 金麟厚와 成守琛조차도 장필의 초서를 즐겨 썼다는 것은 장필의 글씨를 포함한 명대의 초서풍이 당시인들에게 얼마나 매혹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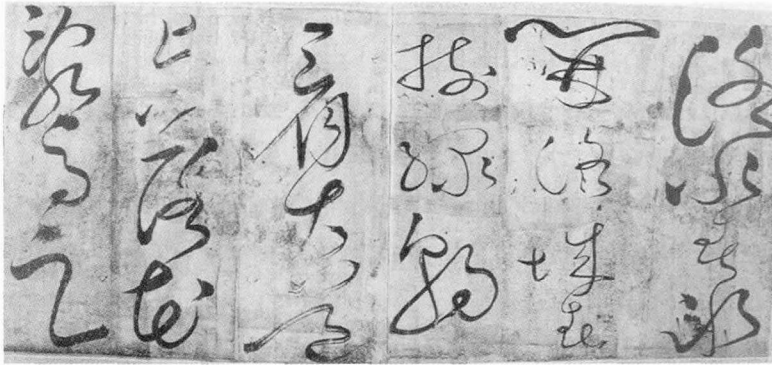
김인후의 필적으로 1537년에 간행된 《草千字》도3가 전한다. 字間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도 3 金麟厚, 《草千字》부분, 1537년, 版本, 34×23.4cm, 帖, 개인 소장

<sup>9</sup> 장필의 생몰년은 1425-1487이므로 그를 嘉靖年間 사람으로 본 것은 황윤석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sup>10</sup> 성수침의 현전하는 필적 가운데 장필의 서풍이 드러난 예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문헌상에는 성수침의 서풍이 황기로의 서풍과 대조적으로 비견된 예가 있고, 현전하는 필적도 趙孟頫·鮮于樞 등의 元代 서풍과 관련성이 깊다. 그러므로 성수침이 장필의 서풍을 수용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도 4 楊士彦,  
〈五言詩〉,  
紙本墨書,  
41.5×97cm,  
卷, 서강대학교  
박물관

連綿草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연면성이 강한 명대 초서풍의 특징과 잘 부합한다. 사선을 강조하여 길게 뻗은 점, 획이 꺾여 돌아가는 轉折 부분을 완만한 곡선과 넓은 공간을 유지한 점, 세로로 긴 자형 등은 그가 장필의 초서풍을 잘 터득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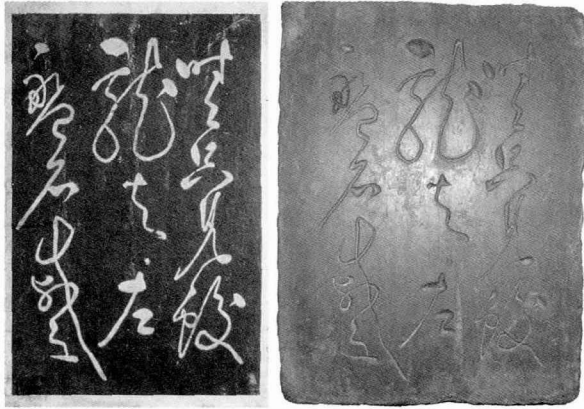
양사언은 황기로와 더불어 초서의 쌍벽을 이루었던 인물이다. 星湖 李瀼은 그의 글씨에 대해 “표표하여 마치 하늘에 치솟고 허공을 걸어가는 기상이 있으니 그 글씨 속에 仙骨이 있음을 속일 수 없다”고 표현하였듯이 그의 초서는 대부분 ‘逸趣’와 ‘超脫’을 상징하는 수식으로 높이 평가받아 왔다.<sup>11</sup> 그의 필적 〈五言詩〉도4를 보면 圓勢의 분방한 필치를 보여주는데, 특히 자형에 있어 획 사이의 공간을 넓게 유지하며 세로에 비해 가로로 긴 짜임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부분적으로 장필의 초서풍이 보이지만, 그의 글씨는 회소의 초서풍에 보다 깊은 뿌리를 두어 독특한 서격을 이루었다.

장필의 서풍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인물은 황기로이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는 장필의 서풍을 수용하기 전에는 장욱과 회소의 전통적인 초서풍에 바탕을 두어 초서를 익혔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헌상의 기록에도 그의 글씨가 종종 장욱과 회소 또는 장필에 비견되었던 것을 보면 그는 장욱·회소의 서풍을 근간으로 장필의 서풍을 가미하여 특유의 서풍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장필을 비롯한 명대의 초서풍은 16세기 전반 조선 서예에 일대

<sup>11</sup> 李瀼, 『星湖僊說』 卷12, 「楊蓬萊」, “楊蓬萊士彦之筆, 飄飄有凌霄步虛氣象, 要是筆中仙骨不可誣也.”

<sup>12</sup> 황기로의 글씨가 장욱·회소 및 장필에 비견된 예로는 河受一, 『松亭集』 卷1, 「經黃孤山舊居有感二首」; 李頤命, 『疎齋集』 卷10, 「梅鶴亭題詠錄跋」; 李好閔, 『五峯集』 卷8, 「李上舍書屏跋」; 柳夢寅 著, 柴貴善·李月英 譯註, 『於于野談』(한국문화사, 1996), pp.252-254 참조.



도5 黃耆老, <草書歌行> 제10면의  
石刻本과 原石, 개인 소장

변혁을 몰고 왔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 국내에 다수의 초서 명가가 속출하였다. 황기로부터 한 세대 앞선 김구가 명대의 초서풍을 선도하였다면, 황기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후의 초서풍의 흐름에 뚜렷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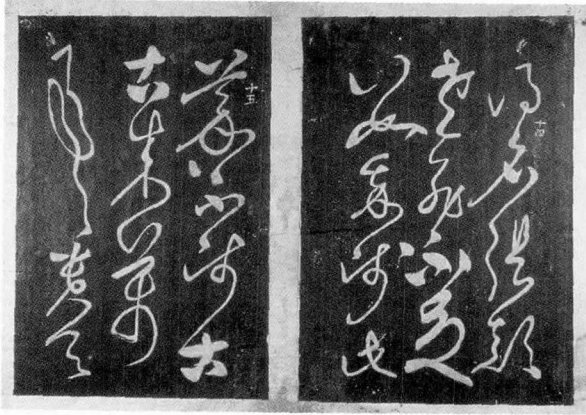
### III. 황기로 초서풍의 특징

현재 황기로의 초서 필적이 다수 전하지만 기년작은 모두 5점밖에 되지 않는다. 기년작 역시 판본이거나 원본을 보고 베낀 모사본이며, 제작 시기 역시 1549년(29세)과 1557년(38세)에 편중되어 있어 각 시기에 따른 서풍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진적이 다수 전하고 있고, 판본 또는 모사본의 상태도 양호한 편이라 그의 서풍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별 어려움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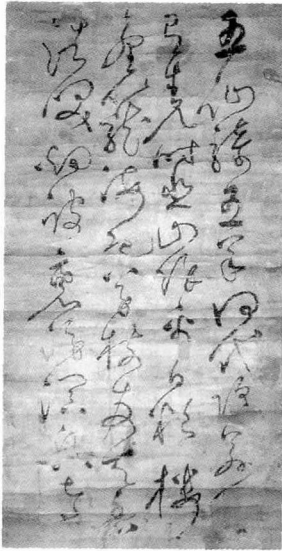
황기로의 필적 중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草書歌行>도5을 들 수 있다. 이 필적은 1549년(29세)에 쓴 황기로의 글씨를 돌에 새긴 석각본으로, 일찍부터 榻本으로 널리 유포되어 현재까지도 다수의 이본 필첩이 전한다. 또한 德水李氏 玉山公派 宗孫宅에 그 原石이 보존되어 있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sup>13</sup>

<초서가행>은 李白이 懷素의 글씨를 찬미한 내용을 담은 시로, 마치 회소의 광초를 염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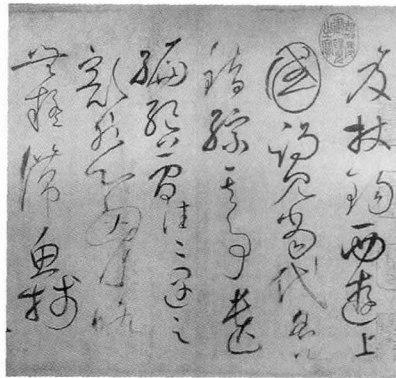
<sup>13</sup> 原石은 모두 9매이고 앞뒤로 새겨 모두 18면이 새겨져 있다. 석재는 매끄럽고 단단한 端溪石 계통이고, 크기는 평균 33×23cm에 두께는 3.5cm 정도이다.



도6 黃耆老, 〈草書歌行〉 제14·15면,  
1549년, 石刻本, 35.2×23.3cm, 帖,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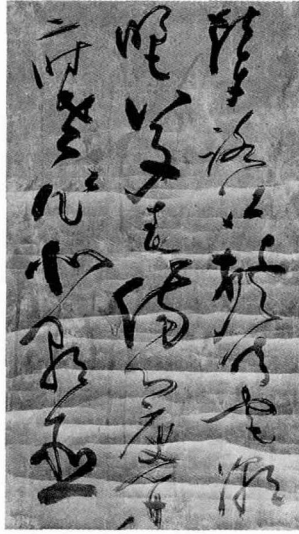
도7 黃耆老, 〈李羣玉詩〉,  
紙本墨書, 118.2×62.6cm,  
軸, 개인 소장



도8 懷素, 〈自敘帖〉부분, 777년, 紙本墨書,  
28.3×755cm, 卷, 臺北國立故宮博物院

에 두고 쓴 듯 圓勢의 분방한 운필이 돋보인다도6. 사선의 기다랗게 빠져 올라가는 획과 좌우로 파동세를 이루는 획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어 황기로가 장필의 서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초서가행〉은 현전하는 황기로의 필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쓴 것으로, 회소와 장필 초서의 특징들이 혼합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덕수이씨 옥산공파 종손댁에 대자로 쓴 書軸 2점이 전한다. 이 가운데 〈李羣玉詩〉도7는



도9 黃耆老,  
〈司空曙詩 金陵懷古〉,  
紙本墨書, 76×43.7cm, 軸,  
개인 소장



도10 張旭, 〈肚痛帖〉부분,  
《蘭亭續帖》(宋拓, 拓本,  
28×15.7cm, 北京 孟憲章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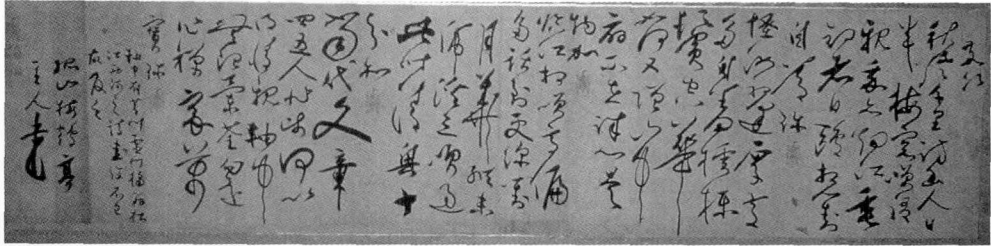
회소 초서풍의 수용을 보여주는 작례이다. 가느다란 필선과 경쾌한 붓놀림, 그리고 연면초로 유려하게 이어지는 원세의 운필은 마치 회소의 〈自敘帖〉도8을 방불케 한다.

또 다른 황기로의 필적 〈司空曙詩 金陵懷古〉도9는 갈필로 쓴 듯 거친 획과 함께 굵고 가느다란 필획이 서로 대비를 이루며 운동감을 상승시킨다. 이는 굵고 거친 필획을 구사하여 호방한 느낌을 주는 장욱의 초서풍과 유사하다도10.

이처럼 황기로의 대자 필적에서 장욱과 회소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그가 이른 시기부터 장욱·회소 등 전통적인 초서를 두루 익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황기로의 필적 가운데 中字에 해당하는 〈敬次〉도11는 회소와 장필의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한편 황기로 특유의 독자적인 초서풍이 보이는 작품이다. 이 필적은 관지의 내용에 따르면 황기로가 당대 문장가 5인의 시가 쓰여 있는 시축을 감상하고 이에 손수 차운하여 쓴 자작시로 7언절구 네 수가 실려 있다.<sup>14</sup> 사선의 기다란 빼침, 획이 꺾이는 轉折 부분의

<sup>14</sup> 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 중에 菁川(柳希齡, 1480-1552)·靈川(申潛, 1491-1554)·橘翁(尹衢, 1495-?)·松江(趙澄, 1511-1574)·西河(미상)의 시가 있는데, 몇 번씩 반복하여 읽음에 차마 그칠 수 없어 이에 미처



도 11 黃耆老, 〈敬次〉, 紙本墨書, 26×110cm, 額, 서울 개인 소장

銳角, 좌우로 파동세를 이루는 획, 글자의 大小와 획의 肥瘦를 강조하는 등 장필의 영향을 받은 획법이 곳곳에 보인다. 그러나 까칠한 澁筆을 많이 구사한 장필에 비해 明淨하고 윤기 있는 線質이 돋보이고, 장필 초서의 특징인 파동세와 사선의 과장된 획들이 보다 절제된 형식을 띤다. 또한 점획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減筆法을 구사하거나, 획이 연결되는 공간을 최소화하여 속도감이 돋보이는 운필을 구사한 점은 장필과 구분되는 황기로 특유의 초서풍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황기로의 초서풍이 자형과 획법에서는 장필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운필법과 선질에 있어서는 장필과 구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언급한 특징들을 표로 정리해보겠다. 우선 장필 서풍과 같은 점은 다음과 같다 표1.

표에서 보이듯 좌우로 떨듯이 파동세를 이루며 내리는 획, 사선으로 길게 빠져 내리다 끝에서 튕기듯 들어 올리는 획, 가로획이 꺾여 내려가는 부분에 형성되는 예리한 각 등에서 장필과 황기로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황기로가 장필의 자형과 획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황기로는 장필과 구분되는 특유의 초서풍을 구사하였는데,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우선 장필과 구분되는 황기로만의 독특한 대표적 자형은 '風'자를 들 수 있다. 황기로의 풍자는 첫 획이 'S'자의 곡선을 그리며 끝에서 멈추는 듯 튕겨 올라가는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황기로의 여러 고유한 특징 가운데 부분적인 요소로 취급될 수도 있으나, 황기로의 초서풍을 계승한 후대 서가들의 필적에서 빈번히 발견된다는 점에서 황기로 서풍의 영향관

시를 짓는다. 孤山 梅鶴亭主人은 쓴다(軸中有菁川·靈川·橘翁·松江·西河之詩, 圭復不已, 故及之, 孤山梅鶴亭主人書).”

표 1 장필과 황기로 서풍상의 유사점

	장필	황기로
과동세를 이루는 획		
사선의 기다란 삐침		
轉折 부분의 銳角		

표 2 장필과 구분되는 황기로 특유의 초서풍

	장필	황기로
독특한 자형(風)		
減筆法을 이용한 속도감 있는 운필	雲之	盡意 雲寒 盡暮
明淨한 線質	文章	鬢絲 文章 鬢空

계를 가늠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장필과 구분되는 또 다른 특징으로 점획을 과감하게 생략한 감필법을 구사하거나, 획이 연결되는 공간을 최소화하여 속도감 있는 운필을 보인다는 점이다. 마지막 특징으로 점이나 획에서 드러나는 선질이 매우 明淨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초서는 운필의 속도가 빠르면 필획이 지면에 깊이 스며들지 않아 들뜨는 경우가 많은데, 황기로의 필적에서는 이러한 점이 드러나지 않고 맑고 깨끗한 선질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질에 있어서의 명정성은 황기로 초서의 풍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황기로는 장욱·최소 등 전통적인 초서를 익히는 외에 당시에 국내에 유입되었던 장필의 서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이들 삼가의 서풍을 바탕으로 이들과는 구별되는 특유의 서풍을 형성하였다. 그가 이룩한 초서의 경지는 고산에 매학정을 세우고 자유롭게 살다간 처사적 풍모와 함께 당·후대인들의 찬미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의 글씨 또한 조선 중기 이래 초서풍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침과 아울러 많은 추종자를 낳게 되었다.

## IV. 황기로 초서풍의 유행 양상

황기로의 초서는 후대에 널리 사숙되면서 조선중기 초서풍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장에서는 조선 중기 황기로의 초서풍에 영향을 받은 書家들의 필적과 관련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초서풍이 어떤 양상을 띠며 유행했는지 알아보겠다. 17세기는 16세기에 비해 황기로의 초서풍이 차츰 변모된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으며, 지역적으로도 유행의 폭이 더욱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그 유행 양상을 16세기와 17세기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16세기의 유행

16세기에 이르러 조선 서예는 송설체로부터 탈피하려는 경향과 魏晉古法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전개되면서 엄정하면서도 단아한 서풍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 한편 명대의 초서풍이 빠른 속도로 국내에 유입되면서 조선 서단에 초서의 유행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유행을 선도했던 황기로의 명성은 당시에 이미 널리 알려져 <초서가행>을 비롯한 다

수의 필적이 모각 간행되며 세간에 널리 퍼졌다. 황기로의 초서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듯 그의 초서풍은 당대의 서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황기로가 활동하던 당시나 그 후대를 통틀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은 玉山 李瑀(1542-1609)이다. 그는 황기로와 사위와 장인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후사가 없던 황기로에게서 매학정을 포함한 모든 유품을 물려받았기에 누구보다 황기로의 글씨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참깨에다 '龜'자를 쓰는가 하면 콩을 두 쪽으로 갈라 오인절구 한 수를 쓸 정도로 細字에 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宣祖는 이우의 글씨를 즐겨 감상하였으며 『草訣百韻歌』에 제목을 손수 써서 하사하는 등 그의 글씨에 남다른 애착을 가졌다고 한다.<sup>15</sup> 퇴계 이황의 문인 權好文(1532-1587)은 이우가 쓴 서첩을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sup>16</sup>

孤山遺墨依然在	孤山의 遺墨이 그대로 있으니,
虎躍龍跳不必分	범이 뛰고 용이 날아오름은 굳이 분간할 것이 없네.
蘭亭鼠筆猶云俗	鼠鬚筆로 쓴 蘭亭敍도 오히려 속되다 하겠으니,
羊肉何徒直數斤 <sup>17</sup>	羊肉이 어찌 한갓 몇 근뿐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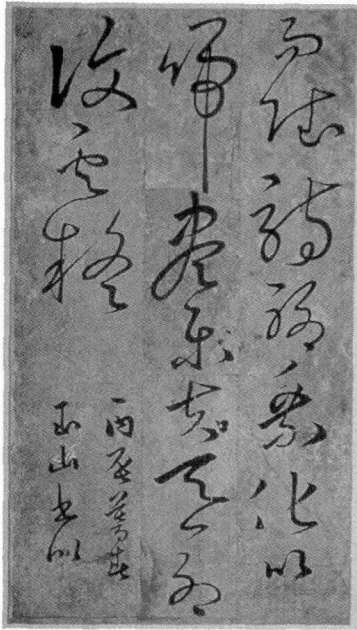
권호문은 이우의 글씨가 생전의 장인 황기로의 필적과 닮아 약동하는 필세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왕희지의 <난정서>보다 낫다고 상찬하였다. 이우는 장가들기 전 젊은 시절에는 어머니 申師任堂(1504-1551)의 서풍을 따랐다. 신사임당 역시 당대 초서의 명가로, 깔끔한 필획과 圓筆勢가 뚜렷한 단아한 서풍을 구사하여 후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sup>18</sup>

<sup>15</sup> 宋時烈, 『玉山詩稿』, 「通訓大夫軍資監正李公墓表」, “栗谷先生有弟曰瑀, 字季獻, 號玉山, 嘗居嶺南之善山, 善山人稱以四絕, 謂其琴書詩畫也, 其書法尤妙, 嘗於胡麻子, 書作龜字, 又劈豆爲兩片, 書五言絕句於其一, 而不失其結構趨勒之法, 宣祖大王嘗加愛賞, 以草訣百韻, 手題冊額而賜之, 其他錫賚甚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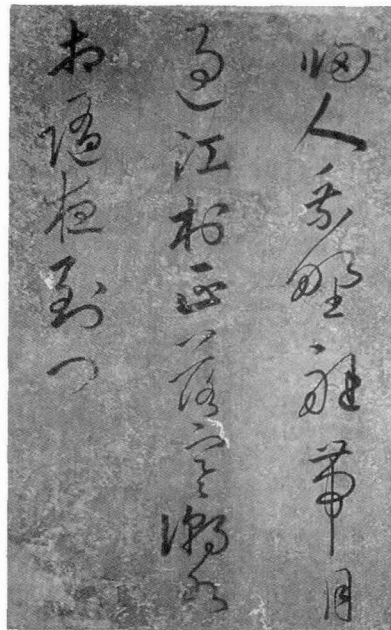
<sup>16</sup> 權好文, 『松巖集』 卷3, 「題商山李參奉書帖」.

<sup>17</sup> '羊肉'은 『莊子』 雜編 「徐無鬼」에 나오는 말로, 舜임금의 德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즉, 양고기에서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개미가 모여드는 것처럼 순임금이 덕으로 교화시키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여든다는 뜻을 비유한 시어이다. 장자, 안동림 역주, 『莊子』(현암사, 1993), p.616 참조. 권호문의 시에서는 이우의 글씨가 뛰어나서 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고기의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개미처럼 많음을 형용한 것이다.

<sup>18</sup> 신사임당의 초서에 관해서는 이완우, 「師任堂 申夫人의 草書」, 『아름다운 여성, 신사임당』(강릉시오죽헌·시립 박물관, 2004), pp.172-199 참조.



도 12 李瑀, 〈歸去來辭〉 부분, 1556년,  
紙本墨書, 42.5×25.5cm, 屏風,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도 13 傅申師任堂, 〈唐詩五絕 6首〉 부분,  
紙本墨書, 44.2×33.5cm, 屏風,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이우가 15세(1556)에 쓴 것으로 알려진 〈歸去來辭〉를 보면 가늘고 단정한 원필을 구사하여 신사임당의 서풍과 매우 흡사한 면모를 보인다<sup>12,13</sup>. 그러나 혼인한 뒤로는 장인의 서풍에 영향을 받은 듯 이전의 단아한 서풍에서 상당히 변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황기로는 사위인 이우의 글씨에 대하여 “이군의 서법은 웅장함은 나보다 뛰어나지만 유려함은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조금만 공력을 쏟는다면 내가 미칠 바가 못 된다”고 하였다.<sup>19</sup> 이러한 평가는 이우가 초기의 가늘고 단아한 풍격에서 벗어나 황기로의 서풍 중 거칠고 호방한 면모를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인의 영수로 영의정을 지낸 鵝溪 李山海(1538-1609)는 어렸을 때부터 筆名으로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다. 사위 李德馨이 쓴 이산해 묘지명에는 筆才와 관련한 일화가 몇 편 전한다. 이에 따르면 이산해는 6살부터 大字를 쓸 줄 알아 神童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당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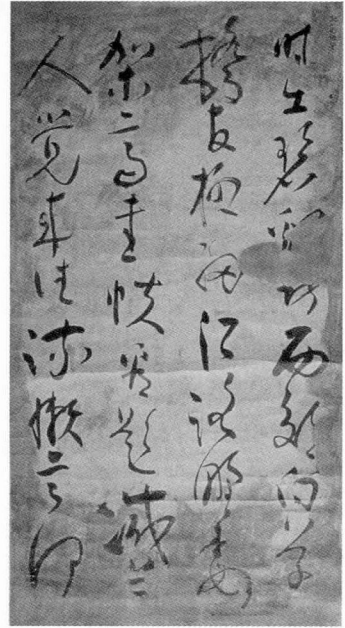
<sup>19</sup> 李瑀, 『玉山詩稿』附錄, 「玉山傳」, “外舅黃孤山嘗曰, 李君書法, 壯過於吾, 而麗有不及, 稍加工程, 非吾所及云.”

내로라 하는 인사들로부터 글씨를 써달라는 청을 받았다고 한다.<sup>20</sup> 또한 장안에 “西小門 子大筆”이라는 동요가 나돌 정도로 이른 나이부터 글씨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sup>21</sup> 황기로 서풍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蔡濟恭이 쓴 신도 비명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sup>22</sup>

부친 省庵公이 고산 황기로의 草書를 얻어 벽에 붙여두고 애완하였다. 어느날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종이가 구겨지고 더럽혀져 있었다. 괴이히 여겨 힐책하니, 유모가 말하기를, “아이가 저를 끌기에 안고 가서 보여 주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손가락으로 아래위로 그어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공이 종이와 먹을 가져오게 하여 아이더러 쓰게 하니 과연 한 획도 틀리지 않았다. 이에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위의 글은 이산해의 筆才를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면이 있으나, 그가 어려서부터 황기로의 글씨에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李賀의 오언율시를 쓴 이산해의 필적이 《翰墨清玩》에 실려 있다<sup>15</sup>. 그의 필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명정한 획법이 돋보인다. 공간을 좁게 하며 돌아가는 속도감 있는 운필, 사선의 기다란 빼침 등에서 황기로의 초서풍을 터득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산해의 초서는 4·5행의 ‘家’와 ‘客’ 등의 글자에서 보이듯 가로획의 기울기가 심한 偏側을 이루는데, 이는 그만큼 지닌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황기로가 주로 활동했던 안동 인근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황기로 초서풍을 계승한 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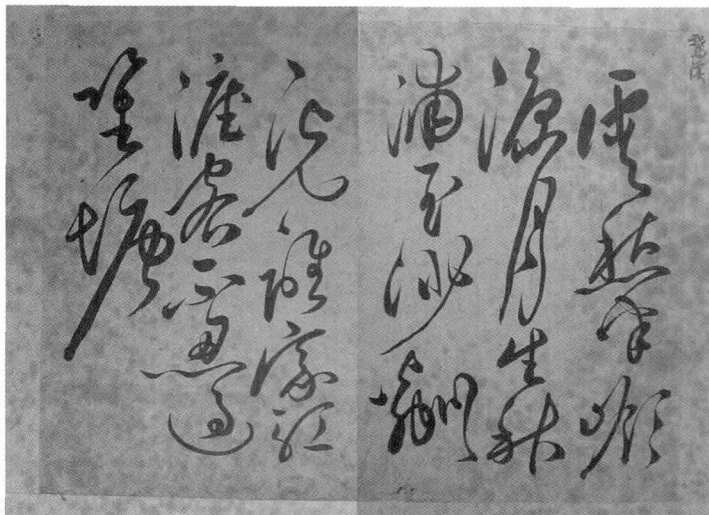


도 14 李瑀, 〈杜甫詩 西郊〉,  
紙本墨書, 86.4×44.5cm, 軸,  
개인 소장

<sup>20</sup> 李德馨, 『漢陰文稿』 卷12, 「翰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 大臣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鵝城府院君 李公墓誌銘」, “六歲, 能作大字書, 握筆蹠蹠揮灑, 字形壯偉若龍拏虎攫之狀, 一時名公鉅人, 無不招尋求筆蹟, 共指爲神童.”

<sup>21</sup> 李山海, 『鵝溪遺稿』, 「鵝溪李相國年譜」 嘉靖23年(1544) 甲辰條.

<sup>22</sup> 蔡濟恭, 『樊巖集』 卷48, 「翰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 大臣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 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鵝城府院君 李公神道碑銘」, “省庵公得黃孤山草書, 貼諸壁愛玩, 一日出外還, 紙頗痕汚, 怪誌之, 姆曰, 兒引姆抱看色, 欣然指劃下上而然矣, 公乃素紙筆便書, 一畫無錯, 人莫不神之.”



도 15 李山海,  
 〈李賀詩 蜀國絃〉,  
 《翰墨清玩》,  
 紙本墨書,  
 31.0×21.5cm, 帖,  
 국립중앙박물관

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 가운데 16세기에 활동했던 대표적 서가로 竹牖 吳澐(1540-1617)과 萬竹 徐益(1542-1587)을 들 수 있다. 오운은 본래 경남 咸安 출신으로 임란 당시 의병을 모집하는 활약을 벌이다 1593년(선조 26) 尙州牧使에 부임하여 병으로 사직한 이래로 줄곧 안동 인근인 榮川에서 거처하였다.<sup>23</sup> 그는 퇴계 이황의 숙부 李堦(1469-1517)의 외증손으로 일찍부터 퇴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오운의 글씨를 설명해주는 구체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행장에 “문장을 일찍 이루고 필획이 굳세어 화려한 명성이 날로 퍼졌으며 동류배들에게 크게 떠받들어졌다”는 내용이 있고,<sup>24</sup> 당시 안동권역에서 학자로서 명망을 얻던 鄭述(1543-1620)가 이황과 이우의 시를 詩板에 써줄 것을 부탁하자 오운이 이를 써준 일이 있어,<sup>25</sup> 그가 안동 인근 지역에서는 꽤 필명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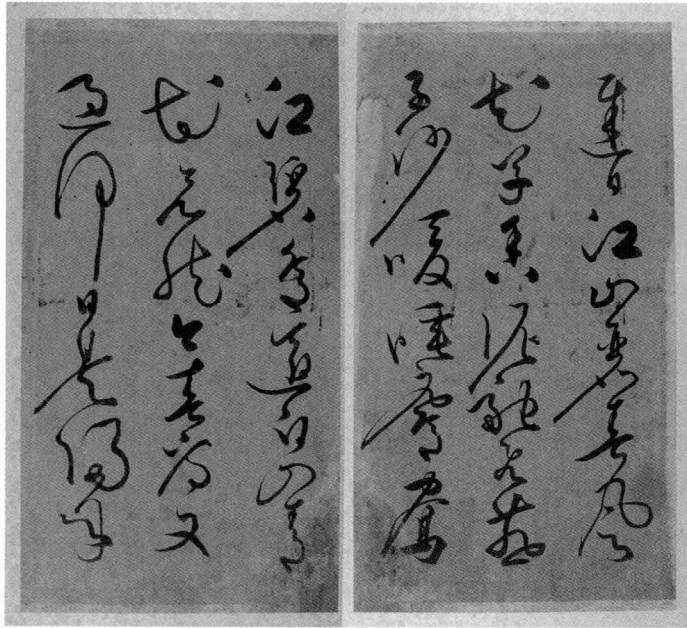
오운의 필적이 竹牖吳澐宗家所藏文籍에 일괄 포함돼 보물(1203호)로 지정된 《兩世遺墨》에 실려 있다<sup>16</sup>.<sup>26</sup> 필첩의 첫머리에는 序文이 실려 있는데, 오운의 글씨에 대해 평가하

<sup>23</sup> 吳澐, 『竹牖集』 卷5, 「竹牖先生年譜」 隆慶二十一年癸巳條 참조.

<sup>24</sup> 趙亨道, 『竹牖集』 卷6, 「行狀」, “文詞夙成, 筆畫遒勁, 華聞日播, 大爲流輩所推服.”

<sup>25</sup> 鄭述, 『寒岡集』 卷9, 「書安東蓮亭追揭退陶先生和松齋詩後」; 吳澐, 『竹牖集』 卷5, 「竹牖先生年譜」 隆慶三十五年癸巳條 참조.

<sup>26</sup> 《兩世遺墨》은 오운과 아들 敬菴 吳汝檣(1579-1635)의 유묵으로, 원래는 8곡 병풍이었던 것을 오운의 8세손 吳慶鼎이 순조 1년(1801)에 帖으로 개장한 것이다. 崔興璧이 지은 序文과 이 서문을 쓴 都漢東의 글씨가 필첩의 첫머리에 실려 있다. 최흥벽의 서문은 두 부자의 글씨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첩으로 개장하게 된 내력을 다루었으며, 끝에는 「大東坡墨妙亭韻題竹牖敬菴兩先生遺墨帖」이라는 제시가 실려 있다. 『動産文化財報告書』(94~95指



도 16 吳濤,〈杜甫詩 絕句二首〉,  
《兩世遺墨》,紙本墨書,  
79×44cm,帖,  
竹牖吳濤宗孫家

기를 “필획이 여위면서 굳세고 고상하면서 에스러워 마치 장송이나 노송이 껍질이 다 벗겨져 뼈대가 드러나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sup>27</sup> 그의 필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가느다랗고 명정한 필획이 주조를 이뤄 위의 평가에 잘 부합한다. 황기로의 글씨와 유사한 자형이 많으며 사선의 강렬한 빠침이 유난히 강조되어 있는 데서 황기로 초서풍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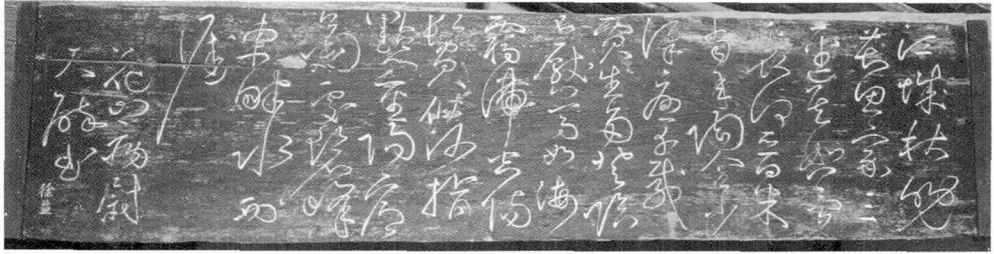
徐益은 율곡 이이·송강 정철과 師友 관계를 맺는가 하면 고죽 최경창·옥봉 백광훈 등 당대에 詩名이 출중한 명사들과 함께 三清洞에서 ‘二十八宿會’라는 모임을 가질 정도로 詩才를 지녔던 인물이다.<sup>28</sup> 그는 안동 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 지역에 깊은 연고를 가졌던 황기로의 서풍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9</sup> 황기로는 1559년 단오절에 지금의 안동시 정상동에

定編)』(文化財管理局, 1996), p.115 참조.

<sup>27</sup> “瘦硬高古, 如長松老檜, 皮盡而骨露者, 竹牖筆也.”

<sup>28</sup> 李緯, 『陶菴集』 卷31, 「牧使徐公墓碣」; 朴世采, 『南溪集』 卷12, 「孤竹詩集後敘」 참조.

<sup>29</sup> 서익은 안동 부사의 자격으로 1577년(선조 10) 權好文과 함께 향교에서 유생들을 考講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안동 부사직을 그만두고 떠나가는 서익을 위해 권호문이 이별시를 지어준 점으로 미루어 서익이 1577·78년 두 해 동안 안동 부사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權好文, 『松巖集』 別集, 「松巖先生年譜」 宣祖十年丁丑條; 同著, 『松巖集』 卷3, 「次楊寧海士奇韻 呈城主徐君受辭歸」 참조.



도 17 徐益, 《醉書歸來亭》, 詩板, 경북 안동시 정상동 귀래정

소재한 歸來亭에 詩板 글씨를 남긴 일이 있다. 이 시판은 귀래정을 세운 李滋(1441-1516)의 손자 李命貞(1504-?)을 위해 써준 것이었다. 그런데 서익이 안동 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 명정의 요구에 응해 써주었던 듯 귀래정에 그의 시판도 함께 걸려 있다<sup>도17, 30</sup>. 맨 뒤에 ‘花山病尉大醉書’라고 쓴 데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분방하게 써내려간 취필이다. 멈춘 듯 빠져 올라가는 강렬한 사선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 황기로의 초서풍이 확연히 드러난다. 다만 이 필적에는 황기로의 서풍뿐만 아니라 좌우로 넓은 짜임과 여유로운 원필세를 특징으로 하는 양사언의 서풍도 함께 들어 있다. 이는 16세기 전반기에 형성되었던 명가들의 초서풍이 후대로 갈수록 점차 혼합되며 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서익이 쓴 《徐華山筆帖》이 안동지역의 문중에 전한다. 이 필첩의 마지막 면에 權萬(1688-1749)이 서익의 글씨를 평한 小識가 있는데, 당대 초서 명가인 楊士彥·白光勳·황기로에 비교하고 있어 주목된다.<sup>31</sup>

華山の 초서법은 스스로 일체를 이뤘으니 역시 해동의 명가이다. 그러나 間架는 양사언에 못 미치고, 清爽은 백광훈에 못 미치고, 流動은 황기로에 못 미친다.

여기서 ‘間架’는 작품 전체의 포치를 말하고 ‘清爽’은 맑고 단정한 획법을 말하고 ‘流動’은 유려하게 움직이는 운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권만의 평가는 서익의 글

<sup>30</sup> 서익이 쓴 시판의 원문은 그의 문집에도 실려 있다. 徐益, 『萬竹遺稿』 卷1, 「醉書歸來亭」, “江城秋晚苦思家, 三選其如夢裡何, 晉米當年陶令少, 漢憂千載賈生多, 登臨不厭樽如海, 羈滯空傷髮似沙, 指點重陽看菊處, 碧峰東畔水西涯.”

<sup>31</sup> “華山草法, 自成一體, 亦海東名家, 然間架不及蓬萊, 清爽不及白玉峯, 流動不及孤山, 要之, 委巷中手法學筆者, 不可不知也, 白狗孟冬, 江左權一甫書.”

씨가 이들 초서 三家에 미치지 못함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삼가의 초서풍을 간명한 용어로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글씨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황기로를 포함한 이들 명가의 서풍이 후대에 이르도록 국내 초서풍의 한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2. 17세기의 유행

황기로의 초서풍은 17세기에 이르러 이전에 비해 변모되는 양상을 띠며 수용되어 갔으며, 그의 서풍을 수용한 서예가들 역시 황기로의 주 활동무대였던 안동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지역적 분포를 보였다. 이 시기에 황기로의 초서풍을 수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驪州李氏 星湖家門을 들 수 있다.<sup>32</sup> 성호 이익은 자기 집안 글씨의 연원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서 字體를 일컬을 때면 반드시 驪興李氏를 말하니, 우리 이씨집안이 글씨로 세상을 울린 지 오래되었다. 종조인 聽蟬堂은 더욱 저명하였다. 청선은 黃孤山에게서 터득했고, 황고산은 張東海에게서 터득했고, 장동해는 또 懷素를 근본으로 했으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追論하는 자들은 이를 草聖의 統緒라고 여긴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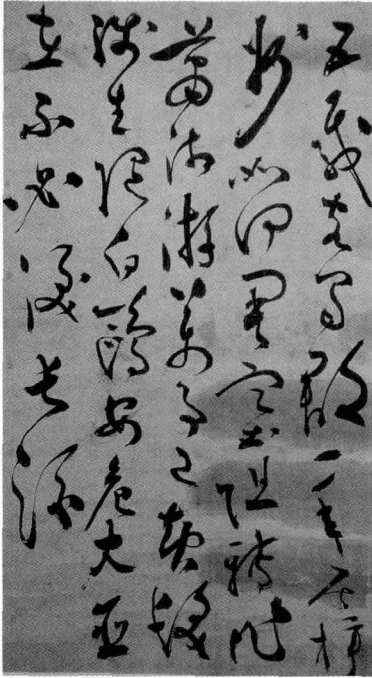
위의 글은 이익의 종조부인 聽蟬 李志定(1588-1650) 서예의 연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다른 문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지정과 막역한 교유를 가졌던 李敏求 역시 장필로부터 황기로를 거쳐 청선 이지정으로 이어지는 초서풍의 전수양상을 시로써 표현하였으며,<sup>34</sup> 『書譜』에서도 이지정의 서법은 황기로를 배워 옥산 이우와 함께 우열을 다투어 당세에 이름을 떨쳤다고 하였다.<sup>35</sup> 이처럼 여러 문헌을 통해서 이지정이

<sup>32</sup> 李志定을 비롯한 여주이씨 성호가문의 서풍에 관해서는 유지복, 「驪州李氏 星湖家門의 書風」, 『성호학보』 2호 (성호학회, 2006), pp.79-130 참조.

<sup>33</sup> 李瀛, 『星湖全集』 卷56, 「驪興世帖跋」, “世稱字體, 必曰驪興之李, 我李之以筆鳴久矣, 而從祖聽蟬堂其尤著也, 聽蟬得之黃孤山, 黃孤山得之張東海, 東海又本乎懷素, 尙論者以爲草聖統緒.”

<sup>34</sup> 李敏求, 『東州集』 卷11, 「蟬翁載酒惠然, 宴款成亭, 雅譚之頃, 侑以翰墨, 實千古勝事, 旣乃脫身過江, 留約三日再至, 戲作十五絕以替談柄, 皆紀實耳」, “千秋東海生, 一派孤山老, 忽得聽蟬翁, 是名一味寶.”

<sup>35</sup> 吳世昌 編, 『槿域書畫徵』 卷4 李志定條, “聽蟬書法學黃孤山, 雖未得其遒勁處, 然與李玉山, 互有優劣, 擅名當世, 而字體清圓秀潤.”



도 18李志定, 〈杜甫詩 去蜀〉,  
紙本墨書, 96.3×54.3cm,  
고려대학교박물관

황기로를 사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현전하는 이지정의 필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지정의 글씨에 대한 역대의 평가 가운데 吳光運(1689-1745)은 “청선의 글씨는 10石의 무게가 나가는 굳센 쇠뇌와 같다”고 표현하였다.<sup>36</sup> 비록 짧은 평이긴 하나 이지정의 필획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지정의 필적으로 현재까지 소개된 대표작은 杜甫의 오언율시를 쓴 〈杜甫詩 去蜀〉도 18이다. 그의 글씨를 보면 필획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연결되어 있어 앞서 말한 오광운의 평가를 잘 대변해 준다. 또한 획 사이의 간격을 좁거나 짧게 하여 간결한 감필법을 구사하는 한편, 장욱의 거칠고 분방한 서풍을 수용한 황기로의 서풍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지정은 누구보다도 황기로의 서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황기로의 글씨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극대화시킨 서가이다. 그의 초서는 획을 간결하게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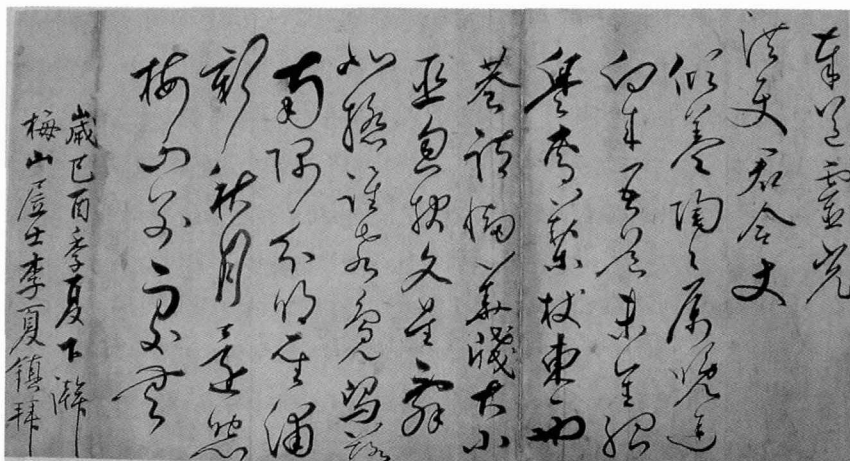
하는 감필법과 필획에 있어서의 太細의 변화가 황기로의 그것에 비해 극대화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sup>37</sup>

이지정의 필법은 종질 梅山 李夏鎭(1628-1682)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 이하진은 어려서부터 필재를 타고났던 듯 仲父 이지정에게 일찍이 서예의 자질을 인정받았다.<sup>38</sup>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文藝에 대해 文辭·聲病·四六駢儷文·書藝 등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書藝에서는 鍾繇와 王羲之를 따랐으되 붓끝은 벗어나기를 생각하였다”고 하여 글씨를 배움에 있어 일정한 틀에 구애받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sup>39</sup> 이하진은 숙종 4년

<sup>36</sup> 吳光運, 『樂山漫稿』卷16, 「家藏書畫記」, “李聽蟬十石勁弩.”

<sup>37</sup> 이지정의 생애와 서풍에 관해서는 柳志福, 「聽蟬李志定(1588-1650)의 書藝」, 『書藝學研究』 10호(韓國書藝學會, 2007), pp.83-108 참조.

<sup>38</sup> 李灝, 『星湖全集』卷67, 「先考司憲府大司憲君行狀」, “公仲父聽蟬堂, 以筆法講世, 見公字畫數日, 此兒必將以筆鳴, …筆法有絕世, 人始信聽蟬堂之爲有眼矣.”



도 19 李夏鎮,〈奉送靈光洪使君令丈〉, 1669년, 紙本墨書, 28.5×53cm, 안산성호기념관

(1678) 3월 進香正使로 연경을 다녀왔다. 귀국하는 길에는 황제로부터 받은 하사품을 통 털어서 왕희지의 선본 탐본을 구입하는 등 수천 권의 서적을 사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sup>40</sup> 그는 또한 《千金勿傳》이라는 서적을 직접 써서 선대로부터 가법으로 이어온 서풍을 아들인 이서·이익 형제에게 전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지정의 초서풍은 종질 이하진에게 이어지며 다소 변모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지정이 거칠면서 활달한 필획을 구사하였다면, 이하진은 가늘면서 유려한 필획이 주조를 이루었다. 〈奉送靈光洪使君令丈〉도19은 이하진이 42세 되던 해에 쓴 기년작으로, 이하진 서풍의 전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되는 작품이다.<sup>41</sup> 이 필적은 영광군수로 가는 洪錫箕(1606-1680)를 진송하며 써준 시고이다.

필획이 이지정보다 더 가늘어지고, 둥글게 돌아가는 圓筆勢와 함께 명정한 필치가 돋보인다. 곳곳에 필획을 簡明化하여 속도감이 드러나는 결구를 취하고 글자의 太細를 강조한

<sup>39</sup> 李夏鎮, 『六寓堂遺稿』 卷4, 「省躬篇」; 林煥澤 編, 『近畿實學淵源諸賢集』 第1冊(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2002), p.276, “攻文辭, 則派回於昌黎河東之派, 而蘇曾以下不論也, 治聲病, 則跂足於貞元元和之祭, 而五季以後不廢也, 駢四儷六而才刃斯游, 爾鍾汝王而筆穎思脫.”

<sup>40</sup> 李夏, 앞의 책, 「先考司憲府大司憲君行狀」, “三月始辭朝赴燕, …及將還, 例有饋賜銀段, 乃舉以買古書數千卷以歸, 八月復命.”

<sup>41</sup> 이 필적은 이하진의 문집에도 그 내용이 실려 있다. 李夏鎮, 『六寓堂遺稿』 卷2, 「別靈光洪太守」; 林煥澤 編, 앞의 책, p.197, “傾蓋陶陶屬晚途, 向來吾道未全孤, 興專藜杖東西巷, 詩恔華牋大小巫, 忽報文星辭北極, 誰教鳧鳥落南隅, 分明聖浦新秋月, 還照梅山別處無.”

것은 황기로로부터 이지정으로 이어진 초서풍이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전절 부분의 예각, 사선의 기다란 빠침, 자형 등에서 황기로 초서풍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다만 글자의 형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휘는 획이 많아지며, 윗부분을 지나치게 筆壓을 가하여 강조하거나, 윗부분을 넓게 하고 아랫부분을 좁게 한 역삼각형의 자형이 보인다. 이러한 이완화 현상은 아들인 이서에 이르러 더욱 현저해지며 가전 서풍의 새로운 양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玉洞 李湊(1662-1723)는 이하진이 연경에서 사온 왕희지의 〈樂毅論〉에서 필력을 얻어 氣勢가 웅장하고 體像이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玉洞體'라고 불렸다.<sup>42</sup> 역대의 평을 보면 이서의 글씨에 대해 특히 '大字'와 '心畫'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많다. "大字에 있어서만 큼은 羅麗 이래로 단연코 한 사람뿐이다" 하는가 하면,<sup>43</sup> "해서와 초서를 잘 써 글씨가 큼지 막하고 氣力이 있었다"고 하여 그가 큰 글씨에 능했음을 언급하였다.<sup>44</sup> 이서는 글씨의 필획에 있어 '획은 살아 움직이려 해야지 죽으려 하면 안 된다. 획마다 정신을 쏟아 함부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sup>45</sup> "心法을 궁구해야지 절대로 字畫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글자의 외양만 본뜨려는 태도를 경계하며 특히 心畫을 강조하였다.<sup>46</sup> 그는 또한 필법을 『周易』의 음양오행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본격적 서론으로 평가되는 『筆訣』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지정으로부터 이하진에게 이어진 초서풍은 이서에 이르러 매우 변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서의 서풍은 시기에 따른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선대 서풍과도 일정한 거리가 있다. 그의 서풍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 필적은 아들 元休(1696-1724)를 위해 써준 것으로, 唐詩 오언절구 여러 폭을 쓴 것이다<sup>20</sup>. 이 필적은 현재까지 알려진 이서의 초서가운데 가장 大字에 속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서는 대자를 잘 썼고 글씨에 氣力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작품에서 굵은 획과 대자로 쓴 호방한 운필은 그러한 평가를 잘 대변해

<sup>42</sup> 李是鉉, 『弘道先生遺稿』附錄, 「行狀草」; 林榮澤 編, 앞의 책, pp.769-773, "先生於筆法, 亦深造其妙, 蓋梅山公使燕時, 購王右軍親筆樂毅論以來, 故先生實得力於此也, 大字與楷體與行書與窠草, 皆真正正體, 而字愈大而畫愈雄傑, 如銀鉤鐵索, 縱橫而不錯, 泰山喬嶽峻天而特立, 氣勢雄壯, 體像嚴正." 이와 동일한 내용이 許傳이 쓴 행장에도 실려 있다. 許傳, 『性齋集』卷29, 「玉洞李先生弘道公行狀」 참조.

<sup>43</sup> 李用休, 『數數集』, 「玉洞先生遺墨跋」, "東人解以手握筆者, 無不知有玉洞書, 先生之書, 在左海幾無兩, 而至大字, 則羅麗以來, 斷爲一人無疑矣."

<sup>44</sup> 李奎象, 『一夢先生文集』三, 「書家錄」補遺, "李湊, 字某, 號玉洞, 午人大族, 官察訪, 善楷法草書, 書大有氣力."

<sup>45</sup> 李湊, 『弘道先生遺稿』卷12下 筆訣, 「畫法」; 林榮澤 編, 앞의 책, p.756, "畫欲其生而不欲其死, 畫畫留神, 毋得放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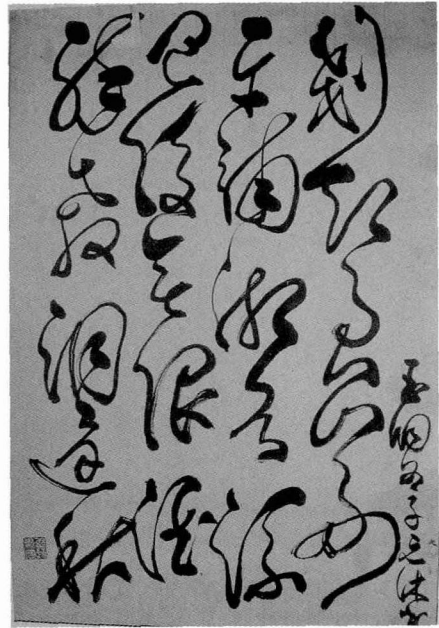
<sup>46</sup> 李湊, 앞의 책, 「論作字法」, "必須釋其心法, 切勿依樣字畫, 恐爲美字, 恐爲死畫, 恐爲書奴."

준다.

이서의 대자 초서는 종조부 이지정에 비해 자간을 한 글자처럼 이어서 쓴 連綿草의 경향이 더 강해지며, 부친 이하진의 글씨보다 필획이 더욱 굵어지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가운데 거칠면서 분방한 운필이 두드러진 것이 이서 특유의 초서풍이라 할 수 있다. 필획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원세의 호방한 필치를 보인 데서 가전서풍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서가 선대의 서풍과는 또 다른 경향의 글씨를 보인 것은 무엇보다 심획을 중시하는 가운데 기세를 표현하려 했던 작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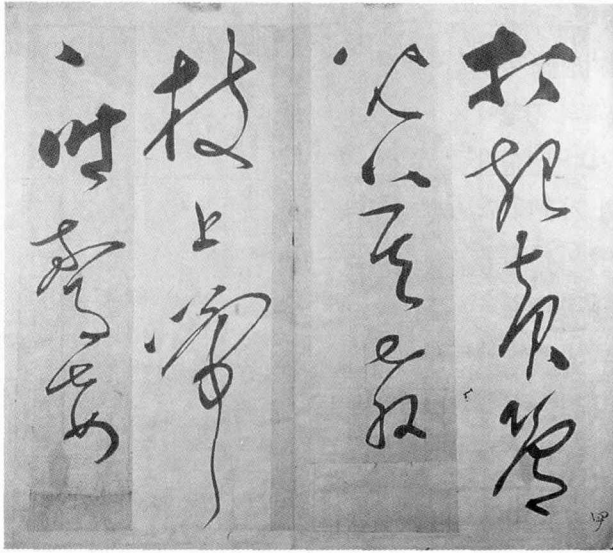
松齋 宋日中(1632-1717)은 礪城尉 宋寅의 7세손으로, 김제출신이며 우암 송시열 문하에 있던 인물이다. 그는 전라 지역에서 일찍이 필명을 날렸는데, 黃胤錫의 『頤齋遺藁』에 그의 행장이 실려 있어 서가로서의 면모를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송일중은 초서에 있어서는 장필·황기로·양사언을 사숙하였고, 해서에서는 唐代의 안진경·유공권의 필법을 바탕으로 한호의 서풍을 받아들여 대자로 쓴 편액 글씨에 능했다고 한다. 또한 종실 중에 臨陽君이 1709년 進賀使로 연경에 갔을 때 송일중의 필적을 가지고 가 康熙帝로부터 “동토에 왕우군이 다시 나왔다”는 칭송을 듣는가 하면, 肅宗에게 대자를 써주어 수차례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sup>47</sup>

송일중의 필적 <宋奉事眞蹟>도21은 唐詩 오언절구 「春怨」을 쓴 것이다. 가느다란 획으로 인해 표일한 기상은 떨어지지만, 획간의 공간을 적게 두거나 감필법을 구사하여 속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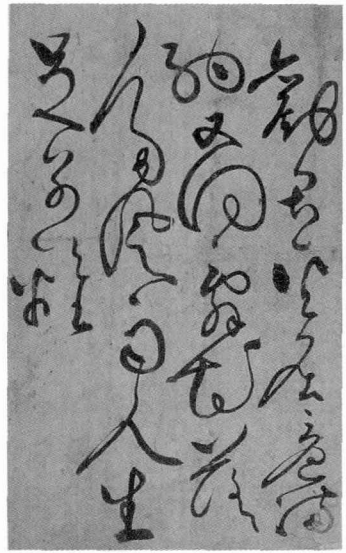


도 20 李滋, <草書李白詩五言絕句>, 1712년.  
紙本墨書, 104.0×81.5cm, 안산성호기념관

<sup>47</sup> 黃胤錫, 『頤齋遺藁』卷21, 「副護軍松齋宋公行狀」, “原公筆法, 于草則始慕張東海黃孤山楊蓬萊諸家, 而融而通之, 自成一派, 少無蹈襲, 于隸則有顏魯公柳公權遺意, 而會之於韓石峯, 其題額大字, 又李雪庵以後一人, 或徑可一丈, 逾大逾奇, 逾老逾勁, 如古釵如怒猊, 觀者駭悸, 一國碑版多出其手, 宗室臨陽君桓及前後赴燕者, 往往齋公書各體入會同館, 清人與列國使价, 互相誇寶曰朝鮮亦有寶乎, 則曰我東偏小無他寶, 所寶惟此書而已, 衆皆嘖嘖曰眞一字千金, 爭投金購之, 康熙主亦自命筆家, 亟取以謝曰不意王右軍更生東土, 庚寅應肅宗傳旨書進松柏凌寒四大字, 以自寓蓄積, 既承隆褒, 申以衣食之賜。”



도 21 宋日中, 〈宋奉事眞蹟〉부분, 紙本墨書, 41.2×23.0cm, 帖,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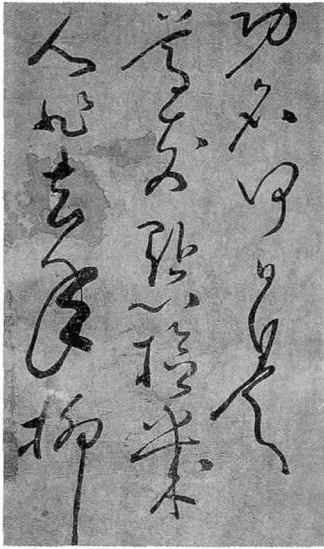
도 22 金世欽, 〈于武陵詩 勸酒〉, 《景玩帖》所收, 紙本墨書, 27.0×17.0cm, 帖, 개인 소장

있는 운필을 보인 점, 파동세를 이루는 획, 군더더기 없이 명정한 필획은 황기로 서풍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글자의 무게 중심을 기울여 당겨 올라가는 듯한 결구를 취한 것은 황기로의 영향을 받은 서가 중 자형의 표현에 있어서만큼은 황기로의 특징을 가장 잘 포착하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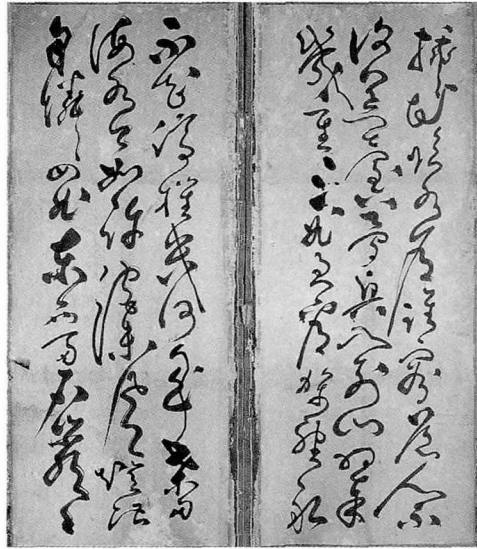
七灘 金世欽(1649-1720)은 대대로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특히 안동에서 세거했던 權斗經·斗紀 형제들과 남다른 교분을 맺었다. 이들은 權穰의 5세손으로,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장필의 필적에 발문을 남긴 장본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세흠은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장필의 필적을 접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또한 안동 지역에 깊은 연고를 가졌던 황기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많다. 족질 金道行이 지은 김세흠의 「行略」을 보면 “필법이 高古하고 淸勁하여 鍾·王을 사모하였고, 사람마다 한 자를 얻으면 보배로 여겼다”는 기록이 있어,<sup>48</sup> 그가 안동 지역에서 꽤 필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세흠의 필적 〈于武陵詩 勸酒〉도22는 둥그런 원세의 명정한 획법과 ‘風’자의 독특한 자

<sup>48</sup> 金世欽, 『七灘逸稿』(『長阜世稿』卷6) 附錄, “筆法高古淸勁, 慕鍾王, 人得一字以爲寶, 然不喜對人揮灑, 有求之者, 多謝却之, 以所居上流有七里谷, 自號七灘.”



도 23 작자미상, 〈蘓軾 七言律詩〉  
부분, 《可法》, 紙本墨書, 折帖,  
安東 臨淸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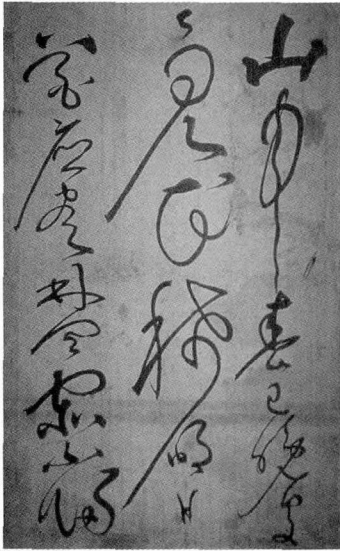


도 24 작자미상, 〈朱子詩 武夷權歌〉 부분, 紙本墨書,  
155×440cm, 屏風, 韓國國學振興院

형 등에서 황기로 초서풍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다만 획간의 공간을 넓게 벌리는 원필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경향은 신사임당을 비롯한 양사언·백광훈 등의 초서에서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김세흠의 글씨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것은 16세기에 형성된 명가들의 초서풍이 후대로 갈수록 점차 혼용되며 절충화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라 생각한다.

이밖에도 작자가 불분명한 초서 필적 가운데 황기로 초서풍이 확연히 드러나는 몇몇의 작품이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오고 있다. 특히 안동 固城李氏 臨淸閣에 소장되어 있는 〈蘓軾 七言律詩〉도 23은 황기로의 진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황기로의 초서풍에 휩쓸린다. 또한 平海黃氏 문중에서 보관해온 〈朱子詩 武夷權歌〉도 24 역시 사선의 강렬한 획과 파동세의 세로획 등 황기로의 초서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 황기로의 영향을 받은 서가의 작품임에 틀림없다.<sup>49)</sup> 이는 황기호가 안동 지역을 포함한 경북 일대

<sup>49)</sup> 이 필적은 朱子의 「武夷權歌」를 써서 8곡병풍으로 장정한 것이다. 병풍 맨 끝의 판지에 의하면 「茅隱居士」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인지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이 필적이 黃汝—(1556-?)이 세거했던 울산 平海의 海月宗宅 舊藏이라는 전언이 있을 뿐이다. 황여일이 鶴峰 金誠—의 집안에 장가든 이래로 그의 집안은 안동의 명문가와 지속적으로 통혼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므로 안동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의 필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 25 曹允亨, 《張籍詩 惜花》,  
紙本墨書, 屏風,  
서울역사박물관

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의 초서풍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기로의 초서풍은 16세기에는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다가 17세기에 이르러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폭 넓게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풍에 있어서도 16세기에는 대체로 황기로 초서풍의 일면이 확대 강조되며 계승되었으나, 17세기에는 자형과 획법에서 이완화 현상을 보이거나 16세기에 형성되었던 초서 명가들의 서풍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는 후대로 갈수록 황기로 초서풍을 비롯한 전대 명가들의 초서풍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며 점차 이들의 초서풍이 절충되며 수용되어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황기로의 초서풍은 조선 중기뿐만 아니라 尹淳·李匡師 등이 두각을 나타내며 명대 문인서풍의 다양성을

보인 18세기에도 그 영향이 이어졌다. 이는 松下 曹允亨(1725-1799)의 필적에 황기로 초서풍의 특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이처럼 황기로의 초서풍은 조선 중기에 걸쳐 폭넓게 유행하며 후대의 초서풍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16세기 전반에 형성되었던 그의 초서풍이 후대에 이르도록 조선 초서풍의 한 전형으로 인식되며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 V. 맺음말

황기로의 초서풍은 唐代의 張旭과 懷素의 서풍을 바탕으로 明代에 초서로 이름을 떨쳤던 張弼의 획법을 가미하여 독자적인 서풍을 이루었다. 장필의 초서는 사선의 강렬한 획, 파동세를 이루는 획, 전절 부분의 예각 등이 그의 서풍의 가장 큰 특징을 이룬다. 장필의 서풍을 적극 수용했던 황기로의 필적에도 이런 특징들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점획을 과감하게 생략한 減筆法, 획간의 공간을 좁거나 짧게 처리한 속도감 있는 운필, 中鋒으로 쓴 맑고 깨끗한 선질은 장필의 초서풍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들이다.

본고에서는 황기로의 초서풍을 추종한 서예가를 16세기와 17세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6세기에 그의 초서풍을 따른 대표적 서예가는 李瑀와 李山海이다. 또한 吳灋과 徐益은 황기로가 주로 활동했던 안동 지역에서 그의 서풍을 계승한 대표적 서예가이다. 17세기에는 李志定을 비롯한 李夏鎭·李湊 등이 여주이씨 성호일문의 가전서풍으로 황기로의 서풍을 수용하며 적극 따랐다. 이밖에 전라 지역에서 활동한 宋日中,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金世欽 역시 황기로의 초서풍을 계승한 17세기의 대표적 서예가이다. 이들의 서풍은 16세기에는 황기로 초서풍의 일면이 확대 강조되는 경향을 띠며 전개되었으나, 17세기에는 자형과 획법에서 이완화 현상을 보이거나 16세기에 형성되었던 초서 명가들의 서풍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는 후대로 갈수록 황기로 초서풍을 비롯한 전대 명가들의 초서풍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며 점차 이들의 초서풍이 절충되며 수용되어 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기로의 초서풍은 시기나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여러 후배 서예가들에게 그 영향이 이어졌다. 황기로의 초서풍이 유행했던 배경에 관해서는 당시의 書壇이 이미 二王의 전형을 벗어난 서풍을 받아들일 만큼 심미적 취향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심미적 취향이 다양화된 데는 당시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즉, 16세기 이래로 당시의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과 염증을 느낀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 한계를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의식을 추구하고, 이러한 자유로움에 대한 추구는 심미적인 면에서 '放逸'하고 '超脫'한 기상을 갖춘 초서풍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유행 배경에는 무엇보다 황기로의 개인적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 찬탄과 숭모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황기로는 당대 또는 후대의 여러 문사들에게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고 유유자적 살다 간 처사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처럼 황기로의 처사적 삶은 그의 뛰어난 글 솜씨와 함께 당시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숭모하던 당·후대인들에 의해 그의 서풍이 지속적인 유행을 보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황기로는 장욱·회소로부터 시작되어 장필로 이어진 광초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이들 서풍을 융합하여 조선적 미감에 맞는 초서풍으로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 조선 중기의 서예사에 기왕의 초서와는 구별되는 개성적 초서풍의 한 전형을 이루었다. 본고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황기로의 영향을 받은 후대의 필적들 가운데 황기로와 동시기에 활동했던 전대 명가의 서풍이 혼재된 경우가 있었다. 후대로 갈수록 점차 이들의 서풍이 절충화하며 혼합되는 과정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명가들의 개별적 서풍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

된 상태이다. 앞으로 서로의 특징이 확연히 구분되는 이들의 초서풍이 조선 중기 이래로 어떻게 절충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 黃耆老(Hwang Gi-ro), 草書(cursive script), 張旭(Zhang Xu), 懷素(Huai Su), 張弼(Zhang Bi)

■ 투고일 2007년 2월 9일 | 심사일 2007년 2월 13일 | 심사완료일 2007년 2월 25일 ■

## 국문초록

이 논고는 黃耆老 草書風의 특징과 후대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조선 중기의 황기로 초서풍의 전개과정 및 서예사적인 의의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황기로(1521-1575이후)는 16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초서의 명가이다. 그는 14세에 司馬試에 합격하는 뛰어난 재능을 지녔음에도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채 경북 善山의 寶泉灘 언덕에 정자를 짓고 술과 글씨로 평생을 지냈다. 또한 보천탄 언덕을 孤山이라 부르고 정자를 梅鶴亭이라 이름하여 그의 호를 삼았는데, 이는 西湖 孤山에 매화를 심고 학을 길러 '梅妻鶴子'로 불렸던 북송의 은둔시인 林逋의 처사적 삶을 동경한 데서 온 것이다.

황기로의 초서풍은 唐代에 이른바 '狂草'로 불렸던 張旭의 거칠고 호방한 필획과 懷素의 가늘고 유려한 운필을 바탕으로 하면서, 明代에 초서로 이름을 떨쳤던 張弼(1425-1487)의 변형된 획법을 가미하여 독자적인 서풍을 이루었다. 장필을 포함한 명대의 개성적 초서풍은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국내에 유입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국내에 다수의 초서 명가가 속출하였는데, 이 가운데 명대의 개성적 초서풍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가 황기로이다.

황기로의 초서풍은 특히 장필의 초서에서 보인 특징들이 보다 강조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점획을 과감하게 생략한 減筆法, 획간의 공간을 좁거나 짧게 처리한 속도감 있는 운필, 中鋒으로 쓴 맑고 깨끗한 선질은 장필의 초서풍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들이다.

황기로의 초서풍은 16·17세기에 걸쳐 폭넓게 유행했다. 16세기에 그의 초서풍을 따른 대표적 서예가는 李瑀(1542-1609)이다. 황기로의 사위였던 그는 황기로에게서 매학정을 포함한 모든 유품을 물려받았기에 누구보다 황기로의 글씨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李山海(1538-1609) 역시 황기로의 영향을 받았으며, 吳灋(1540-1617)과 徐益(1542-1587)은 황기로가 주로 활동했던 안동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그의 서풍을 계승한 대표적 서예가이다. 17세기에 황기로의 초서풍을 수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주이씨 星湖家門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李志定(1588-1650)은 성호 가문의 서풍을 개창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그는 역대의 어느 서예가보다 황기로의 초서풍을 가장 푹진하게 구사하였으며, 황기로의 초서에 나타나는 제 특징을 보다 극대화시킨 서예가이다. 이지정의 필법은 종질 李夏鎮(1628-1682)과 그의 아들 李澈(1662-1723)에게 이어졌는데, 이들에게 전수된 서풍은 다소 매너리즘화 경향을 보이며 변모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밖에 전라 지역에서 활동한 宋日中(1632-1717),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金世欽(1649-1720) 역시 황기로의 초서풍을 계승한 17

세기의 대표적 서예가이다.

이처럼 황기로의 초서풍은 시기나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다수의 서예가들에게 그 영향이 이어졌다. 황기로의 초서풍이 유행했던 배경에 관해서는 당시의 書壇이 이미 二王의 전형을 벗어난 서풍을 받아들일 만큼 심미적 취향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황기로의 개인적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 찬탄과 숭모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황기로는 당대 또는 후대의 여러 문사들에게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고 유유자적 살다 간 처사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처럼 황기로의 처사적 삶은 그의 뛰어난 글 솜씨와 함께 당시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숭모하던 당·후대인들에 의해 그의 서풍이 지속적인 유행을 보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황기로의 초서풍은 조선 중기뿐만 아니라 18세기에 이르는 시기까지도 그의 영향이 지속되었다. 이는 그의 초서풍이 후대의 서예가들에게 모방의 대상이자 學書의 규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황기로는 장욱·회소로부터 시작되어 장필로 이어진 광초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이들을 통해 터득한 서풍을 보다 조선적 미감에 맞는 초서풍으로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 조선 중기의 서예사에 기왕의 초서와는 구별되는 개성적 초서풍의 한 전형을 이루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 The Flourishing of Hwang Gi-ro's Cursive Script Style in the Middle Joseon Period

**Yu Jibok\***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Hwang Gi-ro's cursive script style in the middle Joseon period, by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on the later ages of his style. Hwang Gi-ro (1521-after 1575) was a master of cursive script active in the early 16th century. Though his ability was so great that he passed *Sama* examination only at his fourteen, he did not enter the government service but spent life drinking and practicing calligraphy at a pavilion at the Bocheontan riverbank in Seonsan, the Northern Gyeongsang province. He also named the Bocheontan riverbank Gosan and the pavilion Maehakjeong (梅鶴亭, a pavilion of plums and crane), which became his penname. This was derived from his admiration to a recluse-poet of the Northern Song period, Lim Pu (林逋), who planted plum trees and raised cranes at Sihu Gushan (西湖 孤山) in China, thus called "Spousing a Plum and Fathering a Crane."

Hwang Gi-ro's cursive script style formed a unique style with based on Chang Wu (張旭)'s wild and broad-minded stroke and Huai Su (懷素)'s fine and smooth brush strokes called "Wild-cursive Script (狂草)" in the Tang period in China, and by mixing the transformed stroke style of

---

\* Lecturer, Daejeon University

Chang Pi (張弼, 1425-1487), a master of liberal cursive script style in the Ming dynasty. Liberal cursive script style in Ming dynasty was transmitted to Joseon and created a great sensation around the sixteenth century. Upon this, Joseon produced several masters of the cursive script, and among them Hwang Gi-ro was the one who most vigorously developed such calligraphic style. His cursive script style has a tendency to stress the characteristics in Chang Pi's works more than Chang Pi himself. However, omission stroke that omits tittle resolutely, speedy brushing that sizes the space between strokes and clean and pure lines written by centered tip stroking (中鋒) are his unique characteristics clearly different from Chang Pi.

Hwang Gi-ro's cursive script style were popular widely through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Representative calligraphers in the sixteenth century who followed Hwang's cursive script style is Yi U (1542-1609). Being the son-in-law of Hwang Gi-ro, he inherited Hwang's calligraphy better than others, along with articles and Maehakjeong. Besides, Yi San-hae (1538-1609) was also influenced by Hwang, O Un (1540-1617) and Seo Ik (1542-1587) were typical calligraphers who inherited Hwang's style in the area around Andong where Hwang was mainly active.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representative case of accepting Hwang Gi-ro's cursive script style is Yeju Yi's Seongho family. Among them, Yi Ji-jeong (1588-1650) is regarded as a reformer in Seongho family's calligraphic style. He adopted Hwang Gi-ro's cursive script style better than any other calligraphers in successive generations, maximizing the characters of Hwang's style. Yi Ji-jeong's stroke technique was handed down to his nephew Yi Ha-jin (1628-1682) and his son Yi Seo (1622-1723), but they showed some mannerism. Song Il-jung (1632-1717) in the Jeolla province and Kim Se-heum (1649-1720) in Andong were also the seventeenth century calligraphers in the school of Hwang Gi-ro.

Hwang Gi-ro's cursive script style influenced on many calligraphers. The popularity of Hwang Gi-ro's cursive script style was made possible by the fact that Joseon's calligraphy at the time was so diversified in aesthetic taste to accept many other trends than two Wang's. Also, Hwang's personal life became the subject of admiration for people at the time. Hwang Gi-ro was highly esteemed by many literati people as a hermit who lived free from worldly cares not coveting secular honor and interest. Along with his excellent writings, his script style seems to have kept up in vogue.

Hwang Gi-ro's cursive script style had influenced even the calligraphers of the eighteenth century. His style was treated as a model for later generations and a norm of scholarly calligraphy.